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분립 운동

박은조 목사

샘물교회는 서울영동교회의 네 번째 분립교회입니다. 교회 분립 운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운동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샘물교회도 자연스럽게 분립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샘빛교회입니다. 서울영동교회 집사 출신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샘물교회 개척에 동참했던 성경득 목사가 부목사로 섬기던 중 수지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동백에 작은 예배당 건물을 세우고, 이름을 하늘샘교회로 바꾸었습니다. 성경득 목사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떠났고, 문찬경 목사가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립 교회는 판교샘물교회입니다. 제가 샘물교회 담임목사직과 겸임해서 섬기기 시작했고, 지금은 은혜샘물교회와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판교샘물교회와 샘물중학교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판교샘물교회는 동사 목사인 윤만선 목사가 앞장서서 섬기고 있습니다. 동사 목사 제도는 교단 헌법에는 없지만 단순한 부목사가 아니라 후임이 될 수 있는 목사로서, 사역을 상당 부분 위임받아 섬기는 목사입니다. 출석 교인이 어린이를 포함, 500여 명 정도의 규모이지만 샘물중학교를 감당하는 이 모델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분립 교회는 다우리교회입니다. 샘물초등학교 교목으로 섬기고 있던 임경근 목사가 개척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 당회의 허락을 받아 몇몇 가정의 성도들과 함께 구성 지역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분립 교회는 좋은나무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방영균 목사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저와 함께 서울영동교회에서 지내며 신학을 했고, 샘물교회 개척에 동참했으며, 샘물교회 장학생으로서 국내 대학에서 박사 학위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샘물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던 무렵에 방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해 가려는 교회가 있었지만, 그는 개척 교회의 소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했습니다. 방 목사의 마음에 개척의 비전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함께 파송받을 성도 200명 중에서 50명을 방 목사와 함께 좋은나무교회를 세우는 데 파송해 달라고 당회에 요청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당회가 이를 허락해 주어 네 번째 분립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샘물교회와 판교샘물교회의 담임목사로 섬기다가 샘물교회를 퇴임했습니다. 원래 예정은 2011년까지는 샘물교회 사역을 하고, 후임자를 선정한 후 2012년 상반기에는 후임자와 함께 지내다가 하반기에는 안식년을 갖고, 2013년 연초에 200명의 성도들을 파송 받아서 샘물교회의 다섯 번째 분립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후임 목사가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닌데 목사님과 함께 설교하면서 얼마간 같이 지내는 것은 무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니 그랬습니다. 교회의 사역 계승이라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일이었지만 후임 목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일단 후임 목사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2011년 12월, 후임 목사가님이 부임하는 2012년 4월 1일부터 저는 분립 교회로 가고, 후임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하자고 당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로님들이 논의해서 결정하기에는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나서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정리했습니다. 이로써 2013년 1월에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교회를 2012년 4월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준비 기간이 3개월 10일 정도였습니다.

당회의 결정이 있는 다음 날 수지의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샘물교회는 건축 때문에 빚을 많이 지고 있었습니다. 후임 목사님께 큰 짐을 남겨 두고 가는 상황에, 분립 교회를 하면서 재정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강당이나 다른 교회 건물을 오후 시간에 빌려 쓰는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예배당을 빌려 쓰려고 생각만 하고 있던 세 교회 중 한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오는데 동백의 J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당장 만나자고 해서 그날 오후에 만났습니다. 6년 전에 개척을 해서 작은 예배당까지 지어 놓은 J목사님은 선교사로 떠난다면서 제게 그 교회를 맡아 달라고 했습니다. “동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런 생각으로 J목사님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샘물교회의 다섯 번째 분립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를 맡을 수도, 합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장 예배 처소가 필요하니까 당분간 제가 두 교회를 한 지붕 아래에서 섬길 수는 있습니다. 1-2년간 그렇게 두 교회를 섬기다가 저는 샘물중고등학교 자리를 잡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때쯤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의 후임 목사를 세우고 나오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J목사님은 동의했습니다.

그 교회의 리더들 30여 명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리더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공동의회에서 90% 이상의 성도들이 동의하면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동의회에서 90% 이상의 찬성이 나왔습니다.

다음 단계로, 노회 위원들에게 그 교회의 임시 당회장직을 맡겨 주면 얼마간 섬기다가 후임 목사를 세우고 저는 샘물중고등학교 세워지는 곳으로 떠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회 위원회가 이를 허락했습니다. 이로써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동백으로 부르신다고 확신했습니다. 샘물교회에서는 동백에서 시작되는 다섯 번째 분립교회에 참여할 150명의 성도들을 선착순으로 받는다는 광고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동백으로 가도록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생긴 여러 복잡한 일들로 한 지붕 두 교회의 꿈이 무산되었습니다. 긴급 기도를 하면서 예배 처소를 다시 구하던 중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강당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2012년 4월 1일 주일, 이곳에서 샘물교회에서 파송 받은 성도 150명과 판교샘물교회에서 파송 받은 성도 20명이 함께 모여 은혜샘물교회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백으로 부르심을 받고 온 지 불과 10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주께서 샘물중고등학교와 교회 부지로 동백 상하동의 땅 8,000여 평을 놀라운 방식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샘물교회 개척 초기에 분당 동원동의 땅 1만 평을 사면서 복지용으로 5,000평을, 학교용으로 5,000평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 땅은 개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곳에서 복지와 교육과 선교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꿈을 따라 나아가려고 합니다.

샘물교회를 퇴임할 때 장로님들은 사랑마루와 말아톤복지재단을 제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가 어떻게 그 짐을 지겠느냐며 극구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들이 다음과 같이 강권했습니다. “이 사역들이 샘물교회에서 시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연합 사역이 되었고, 후임 목사가님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맡아서 섬겨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해서 제가 이 두 가지 사역을 계속해서 맡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사역과 구제 사역도 이제 용인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샘물교회의 다섯 번째 분립 교회인 은혜샘물교회는 지난 2013년 4월 7일, 1주년 감사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생명의말씀사] pp. 16-22.

